

주장·설명·근거·예시, 네 문장으로 토론문 고치기

똑똑 · 에디터 도담 · 발행 2026.09.28

근거를 붙였는데도 설득되지 않는 글의 빠진 연결을 찾습니다.

개념 설명과 자체 제작한 적용 사례를 함께 읽습니다. 가상 사례·수치는 해당 위치에 표시했습니다.

쉬운 설명

“우산을 챙기자”는 주장, “비가 오면 젖으니까”는 설명, “오늘 예보에 비 소식이 있다”는 근거, “지난번에는 옷이 젖었다”는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시는 이해를 돕지만 오늘의 날씨를 대신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핵심

- 주장은 독자가 받아들이길 바라는 판단입니다.
- 설명은 근거가 주장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드러냅니다.
- 예시와 근거의 역할을 구분하고 적용 조건을 남깁니다.

구분 · 문장마다 맡은 일을 적습니다

토론문을 읽을 때 형광펜 색을 네 개 고르기 전에 역할을 정의합니다. 주장은 무엇을 해야 하거나 어떻게 판단해야 한다는 핵심 문장입니다. 설명은 왜 그런 판단이 나오는지 연결합니다. 근거는 확인 가능한 자료와 관찰이고, 예시는 독자가 상황을 이해하도록 구체화합니다.

한 문장이 두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제 글의 순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칸은 모든 글을 기계적으로 잘라 넣는 공식이 아니라 빠진 연결을 점검하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름을 붙이는 기술보다 독자가 논리를 따라갈 수 있는지입니다.

가상 토론문 · 도서관 연장 운영을 제안한다면

역할	문장 예시
주장	시험 기간에는 도서관 운영 시간을 시범 연장하자.
설명	현재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학생에게 공부할 공간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한 근거	이용을 못 한 이유·시간대 수요·운영 비용 자료가 필요하다.
예시	방과 후 활동 때문에 늦게 오는 학생이 자리를 이용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조사 결과가 없는 가상 논제입니다. 필요한 근거를 이미 확인된 사실처럼 쓰지 않았습니다.

연결 · 근거와 주장 사이에 ‘그래서’가 성립하나요?

운영 시간을 늘리길 원하는 학생이 있다는 자료는 수요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비용을 감당할 수 있거나 모든 학생에게 좋은 정책이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수요에서 시범 운영으로 이어지는 설명과 추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거를 읽은 뒤 “이 자료가 없으면 내 주장의 어느 부분이 약해지는가”를 물어보세요. 대답하기 어렵다면 장식처럼 붙인 출처일 수 있습니다. 관련 주제라는 이유만으로 아무 통계나 붙이는 대신 실제 판단에 쓰이는 자료를 골라야 합니다.

논증 지도 · 자료가 판단으로 가는 길

- 근거: 무엇을 확인했는가
- 설명: 왜 이 판단에 연결되는가
- 주장: 어떻게 판단·행동하자는가
- 조건·반론: 어디까지 적용되고 언제 약해지는가

자체 논증 점검 지도. 실제 글의 문단 순서를 고정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반론 · 가장 약한 반대편을 만들지 않습니다

반론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사람”처럼 단순화하면 실제 쟁점을 놓칩니다. 도서관 연장에 반대하는 사람도 학습 공간의 필요를 인정하면서 인력·안전·비용을 걱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강한 우려를 이해하고 답해야 주장의 조건이 선명해집니다.

생각을 바꿀 자료를 한 가지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요가 거의 없거나 운영 부담이 다른 지원을 크게 줄인다면 제안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반론을 적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내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 · 좋은 문장을 고르기보다 빠진 근거를 채웁니다

문장을 매끄럽게 바꾸는 일과 논증을 보강하는 일은 다릅니다. 자료가 없는 자리를 자신감 있는 표현으로 메우지 않습니다. 확인 전에는 가설이나 필요한 조사로 표시하고 결론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루브릭을 사용할 때에도 칸을 채웠는지보다 자료의 적합성, 설명의 연결, 반론의 타당성을 보세요. 짧아도 판단의 이유가 보이는 글이 길지만 근거가 영킨 글보다 검토하기 쉽습니다.

직접 생각해 보기

“친구 한 명이 다회용 컵을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다회용 컵 사업은 실패한다.”를 고쳐보세요.

확인 설명

분실 경험은 점검할 문제의 예시입니다. 전체 사업을 판단하려면 회수·분실·사용·세척 등 자료가 필요하다고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개인 경험도 근거인가요?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험을 전체 집단으로 일반화할 때는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가상 예시를 쓰면 안 되나요?

개념 이해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관측이나 취재 사례처럼 표시하지 않고, 주장을 입증하는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원문과 출처

- Digital Inquiry Group · Civic Online Reasoning — <https://cor.inquirygroup.org/>: 온라인 정보 출처와 근거를 확인하는 교육 자료. 본문의 체크리스트는 자체 구성입니다.
- Cornell · 루브릭 활용 — <https://teaching.cornell.edu/teaching-resources/assessing-student-learning/using-rubrics>: 수행 기준과 수준을 기술하는 평가 도구. 본문 표는 자체 작성입니다.

제작 방식과 정정 안내: <https://www.dokdok.co/about#editorial>

온라인 원문 · 수정된 내용은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dokdok.co/reading/claim-evidence>